

흔들리는 선배·사찰 네트워크 ‘해답’

불자 교수들, 대학 불교동아리 활성화에 한 목소리

충북 영동대 경찰행정학과 1학년
 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최근 졸업반
 선배들로부터 솔직한 얘기를 들었다.
 학교 내 동아리 중 불교반에 가
 입하면 취업이 수월하다는 말이었
 다. 동아리 가입 후 다가온 첫 수료
 법회에서 A학생은 학과 교수님과
 함께 중견 보안업체 임원들이 법회
 에 참석한 것을 보고 놀랐다. 법회
 후 ‘선배들이 이 인연으로 채용됐
 다’는 말에 매우 법회에 빠지지 않
 으리라 마음먹었다.

최근 취업 등 현실문제에 대한 부
 답으로 대학 내 동아리 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대학내 불교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불교가 가진 네트워
 크를 적극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
 돼 주목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
 섭)는 8월 17~18일 서울 진관사에서
 2015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수불자대회에서는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주제로 특별
 회의가 열려 늦은 밤까지 열띤 토론
 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각 대학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들은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황을 털어놓고 공의를 모
 아가자고 다짐했다.

‘취업’에 불자조직 적극 활용

이번 특별회의는 급감하는 대학
 생 불자들이 인한 위기의식에서 시
 작됐다. 대학생 포교의 대표단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지회는 122개에 불과
 하다. 대불련에서 집계를 한 2009
 년 158개 지회에서 6년 만에 36개
 지회가 줄어든 상황이다.

이제는 대불련 회장은 “지회마다
 10여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회 수도 줄고 있지만 지회에서 활
 동하는 학생들의 수도 대폭 줄었다”
 고 말했다.

6년간 대불련 36개 지회 사라져 17일 교수불자대회서 특별회의 “이대로는 한국불교 미래 없다”

취업 연계 등 활성화 방안 제시 “불자기업 연결 후 50여 명 몰려” 일선 교수들 “중단도 지원해야”

이에 대해 최홍준 상지영서대 교
 수(교불련 명예회장)는 “130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 중 전체 불교동아
 리 학생은 채 2000여 명이 되지 않
 는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세
 부적으로 보면 한 두명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사라지는 곳도 늘고 있다.
 대학생 포교의 공백이 불교의 미래
 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회의를 위해 모인 교수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규

호 영동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는 자신의 사례를 통해 해답을 제시
 했다. 불자 선후배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 멘토링이 그것이다.

이 교수는 취업한 불교동아리 선
 배들을 후배들과 연결시켜 동아리
 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삼성 산하 보
 안업체 휴먼TSS, 인천공항 보안업
 체 유빙SS 등 중견업체 취업이 원활
 하다는 소문에 이 대학 수요법회에는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이 교수의 학과도 불교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받아 일반 경찰행정
 학과의 30%대 취업률을 훌쩍 뛰어
 넘은 90%후반대 취업률(전국 4위)
 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학생들의 당면과제는
 취업이기에 취업에 필요한 불자기
 업들과의 네트워크 개발이 필요하
 다. 또한 선후배 유대가 끈끈한
 ROTC개념으로 불교동아리를 활성
 화해야 한다. 취업한 동아리 선배들
 이 다시 동아리를 찾아 후배들을 이
 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
 해서는 대학 간의 구분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권 부산 해양대 교수도 이 같
 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
 한 활동을 펼치는 부산지역 불교동
 아리들의 특징은 지도교수, 신도회
 가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
 고 소개했다. 부산 지역은 불교동아리 회원이

1990년 1500명에서 2006년 150
 명으로 급감하자 2012년부터 부산
 불자교수연합회가 주축이 돼 대학
 간 연합법회를 열고 있다.

정 교수는 “단순한 법회를 열면
 학생들의 참석이 미미하다. 신도회
 기업대표들, 교수들과 법회 후 영
 화관람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변화
 를 모색했다”며 “학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제대로 알고 상담해줄 수 있
 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니 점차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 법회를 개발하라

일선의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들은
 네트워킹에 대한 노력과 함께 법회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법사 파견 등
 불교계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
 을 모았다.

성희재 경북대 교수는 “대학생들
 은 예전과 달리 자기개발로 인해 여
 유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학
 생들의 수업시간을 배려해 점심시간
 법회를 진행했지만 짧은 시간에 맞
 춘 법회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라
 며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했다.

이용철 성균관대 교수는 “공식적
 으로는 동아리 지도교수직이 없는
 대학이 많다. 지도법사가 있어야 하
 기에 대학 인근 지역사회가 법사를
 파견하고 종단에서는 이를 인사고
 과에도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교수불자연합회와 중
 앙신도회는 신도조직을 활용한 네
 트워크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조계
 종 포교원에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중국 텐진 폭발사고 희생자 천도 실종자 무사귀환 부상자 조속 쾌유 기원 대법회



천태종은 8월 20일 서울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홍콩세계불교평화발전협회와 공동으로 ‘중국 텐진 폭발사고 희생자 천도·부상자 조속쾌유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텐진 참사 희생자 극락왕생 기원”

천태종, 20일 관문사서 천도재... 대사관에 3000만원 전달

천태종이 최근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로 숨진 영혼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 쾌유를 발원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에 피해 복구 성금 3000만원
 을 전달하는 보시행을 펼쳐 눈길을
 끈다.

천태종(총무원장 총광)은 8월 20
 일 서울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홍콩세

계불교평화발전협회와 공동으로
 ‘중국 텐진 폭발사고 희생자 천도·
 부상자 조속쾌유 기원 법회’를 봉행
 했다. 이날 법회서 천태종 총무원장
 총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번 법
 회를 봉행하는 것은 일체중생이 하
 나의 뿌리이기 때문”이라며 “고통
 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기쁨은 나눌

수록 커진다는 말처럼 이웃의 고통
 을 함께 보듬어주는 마음서 보살심
 이 싹트며 이 우주 법계가 정토로 변
 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봉춘 천태불교
 문화연구원장, 박양 홍콩세계불교
 평화발전협회 사무총장 등 1천여
 명 참석했으며, 법회 후에는 총무부
 장 율도 스님 등이 서울 명동 소재
 주한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텐진항
 폭발사고 피해 복구 성금 3천만원
 을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총장 당연직 이사’ 조항 삭제

동국대 이사회 18일 결의... 개방이사 총원 지시 이행

동국대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서 총장이 제외됐다. 동국대(이사장
 일면)는 8월 18일 본관 로터스홀에
 서 293회 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
 을 통해 총장의 당연직 이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이날 이사회는 교육부에서 지적
 한 이사회 내 개방이사 4명 총원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동국대 이사회
 는 정원 13명에 재직 11명으로 이중
 개방이사는 안채란, 이연택 이사 등
 2명에 불과하다. 조계종단 추천 이
 사는 9명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9월 21일까
 지 개방이사 2명을 총원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승인인 신입이사 지
 흥, 호성 스님의 이사 승인을 취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였다.
 남은 이사 정원 2명 중 1자리는 당
 초 정관상 총장 당연직으로 개방이

사는 1명 밖에 선임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를 규정하는
 정관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2항
 문구를 수정해 ‘이사는 조계종 재적
 승려 9인, 대학의 장, 기여는 이교도
 가 아닌 교육계 및 각계의 덕망 높은
 인사로 한다’에서 ‘대학의 장’을 삭
 제했다.

또 정관 제23조(임원의 임기)를
 수정해 ‘총장이 이사가 될 경우 (총
 장)임기 내로 국한한다’라고 조항을
 삽입했다.

동국대 이사회는 9월 21일 이전
 이사회를 한차례 더 열고 개방이사
 2명을 선임할 계획이다. 동국대 법
 인사무처 관계자는 “(정관을 개정해
 지만) 총장의 이사 가능성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동국대 총

장후보자추천위원회 내에 총장 후
 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총장후
 보대상자 검증심사위원회’를 두기
 로 결정했다. 이 규정은 동국대 경
 주캠퍼스 총장 선거에서부터 적용
 된다.

이와 함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도 변경했다. 개방이사추
 천위원회 위원은 법인이사회 추천
 3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
 인,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2인 등 총
 7명으로 영담스님의 이사 해임에
 따른 공석에 호성스님이 선임됐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
 초·중·고등학교 산하 교감의 임
 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했다.

한편 이사회에는 이사장 일면 스
 님을 비롯해 성타, 삼보, 명신, 지홍,
 심경, 호성 스님과 안채란, 이연택,
 김선근 이사 등 재직이사 11명 가운
 데 10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치적 징계’ 갈등 해소 방안 논의된다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단 연석회의서... 과거사 정리 제도 개선

계안된 ‘엄화미소법’ 다룰 총회 특별위원회도 구성

1962년 통합 종단 출범 이후 정치
 적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스님들에
 대한 종단 화합 조치 논의가 조계종
 중앙총회 차원으로 본격 논의될 것
 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성문) 8월
 18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

현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
 5차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별번자
 사면과 과거사 정리,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 등 최근 종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스님 등은
 의현스님 재심회결원 판결을 계기
 로 공론화된 사면 및 과거사 정리를
 위해 총회 종헌종법특별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뜻을 모았

다. 종헌종법특위는 앞으로 종단 화
 합을 위한 조치나 사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해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으며, 소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
 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
 며, 이르면 11월 총회에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방안이 성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 스
 님들은 지난 8월 10일 총무원장 자
 승 스님과 중앙총회의장 성문 스님,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 등이 제안한
 ‘엄화미소법(가정)’에 대해 논의했
 으며, 9월 8일 열리는 제203회 임시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총회 종헌종법특위는 오는 9
 월 1일 오후 3시 소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및 과거사 정리를 위한 제도개
 선과 공청회 개최 등 추진 계획에 대
 해 논의한다. 신성민 기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든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할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제)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개송·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